

통권 제 238호

강남. 라 00943

2567
2023

08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15
세상을 향한 빛



살다 보면
노선 변경이
필요한 때



씨앗 한 알
새로운 것과
즐거움 만나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충지중

종조법설집

제4장 밀교경초역편 p.270

보리심 菩提心

보리심은 큰길같이 지혜성에 들게하며
보리심은 정법으로 제도함과 같음이니
일체모든 싯된법을 다여의게 하느니라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십선성취 _50

베푼다는 것

_ 남해 정사



마지막 공부 _68

옛 물이 있을소냐

_ 유소림



여행여담 _72

동묘시장,
그 신비한 거리 下

_ lovely씨이

목차

2567
2023

08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12 불교이야기

18 마음챙김 메커니즘

22 경전에서 찾은 지혜

25 문화재 해설

28 산책

30 살다보면

36 붓다in미디어

39 마음의 등불

42 씨앗 한 알

46 지혜의 트랙

50 십선성취

54 속담으로 보는 불교

58 나만의 빛, 모두의 빛

62 서원당 안의 불교

65 금쪽상담소

68 마지막 공부

72 여행여담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78 법회일정

불공 잘해라 - 세상을 향한 빛 _ 김천

업 이야기 1 _ 화령 정사

마음의 깊이 _ 임진수

분별없는 것이 안인이다. _ 불교총지중 법장원

이국적인 아름다움, 황남대총 출토 봉수형 유리병 _ 위드다르마 편집실

괴담 _ 오대혁

노선 변경이 필요한 때 _ 이육경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_ TERU 조세훈

매미에 대한 단상 _ 정동화

새로운 것과 만나는 즐거움 _ 법상 스님

품격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_ 방귀희

베푼다는 것 _ 남해 정사

미모는 가족 한 꺼풀 _ 김성철

시집가는 날 _ 한국전통등연구원

중대팔업원의 불보살 _ 해광 정사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_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옛 물이 있을소냐 _ 유소림

동묘시장, 그 신비한 거리 下 _ lovely씨이

나는 나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신독^{慎獨}’이란

바로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동차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이

‘신독’의 자세로 일한다면 그 사람이 만든 자동차는
최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도 ‘신독’의 자세로 일한다면
그가 요리하는 음식은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남이 보던 보지 않던
자신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진실했기에
그 결과는 명품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잘하는 사람도

남들이 안 볼 때는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천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남이 보지 않을 때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입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3년 7월 05일 자>

불공 잘해라 세상을 향한 빛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即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10화 - 새로운 길 2

이때부터 역경은 대성사의 평생 숙원이 됐는데, 한학에 정통하여 한문 경전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영어 문헌까지 찾아 경전을 선정하고 직접 번역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원력을 다 했다.

밀교의 주요 경전인 대일경, 보리심론, 보리심의 등을 번역했고, 현교에서도 수행에 참조가 되는 심지관경(보은품), 옥야경, 유마경, 반야심경 등을 골라 번역해서 밀교의 교리와 수행의 지침이 되도록 했다. 밀교 경전뿐 아니라 현교 경전까지 번역한 것은 경에 대한 대성사의 뚜렷한 이해와 불교관 때문이다.

“불교를 크게 나눠 소승, 대승, 밀교의 셋을 들 수 있고, 석가 모니불의 가르침에서부터 시대에 따라 점차 발달하여 왔다는 설도 있다. 사실은 불타 자신의 교설 중에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부분별로 중점을 두어서 전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계통은 소승, 어떠한 계통은 대승, 어떠한 계통은 밀교라는 등의 서로 다른 경향이 함께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소승 경전이라고 하는 아함경이나 파알리 성전 중에도 대승 내지 밀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실례로 유마경 속에 드러나는 밀교의 가르침을 들었다.

“표현수단에는 일상적, 논리적, 공개적인 것이 있다. 그 밖에 말을 떠난 표현수단은 무언無言의 표현 또는 상징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언의 표현’이라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대승불교 경전은 ‘무언의 표현’으로써 말을 떠나 전해진 진실과 그 진실한 가르침을 표현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유마경維摩經에 나오는 유마 거사가 입을 다물어 침묵한 ‘유마의 일묵一墨’이 있는데, 이런 애매함을 초월하려는 것

이 밀교 제2의 과제가 되어 상징적인 밀교적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현교에서는 인간의 원인^{原因}인 수행^{修行}의 단계는 설할 수 있어도 수행의 결과로써 부처를 이루는, 깨침의 단계는 설할 수가 없다고 한다. 현교에서 ‘인분가설^{因分可說} 과분불가설^{果分不可說}’이라 한 내용이다. 그러나 밀교에서는 표현하지 못한다는 ‘과분^{果分}’을 기어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설^{可說}’로 성취시켰다. 그것이 상징적 표현 수단이며 제2의 밀교의 본질이다. 이것은 세 가지로 대별^{大別}된다.

첫째 신체^{身體}에 의한 상징^{象徵}인 신밀^{身密}과 두번째 상징인 구밀^{口密}, 셋째로 마음에 의한 상징인 의밀^{意密}을 모두 포함하여 수행과 수행의 성취를 드러낸다.

세 가지의 상징인 삼밀^{三密}은 전신적^{全身的} 상징이 밀교 제2의 특질이며 실질적 내용이 된다. 즉 신비한 경지를 깊이 체득하는 심비성^{沈祕性}과 깨달음이 드러난 공개성이란 두 가지의 상반^{相反}된 성질이 밀교 속에 있다.

또 하나의 본질은 제3의 특질인 의례^{儀禮}이다. 현교에서 말로 표현된 부처의 세계를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는 인간구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표현된 상징을 해독하여 되짚어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이 그렇게 실현하는 것, 말을 바꾸자

면 상징으로 표현된 불^佛의 체험을 상징을 통하여 수행하는 이가 추체험^{追體驗}, 즉 따라서 체험하는 것이다. 이 해독의 규칙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분석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것이 밀교 실천규정인 의궤^{儀軌}이며 구전과 더불어 방대한 내용으로 남아 있다.”

밀교 경전은 애매한 언어의 표현을 넘어 실제로 체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교가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을 밀교는 의례와 신비적 수행을 통해 다가설 수 있는 실질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전에 대한 대성사의 확고한 견해는 남긴 계송에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시방삼세 나타나는 일체 모든 사실들과 내가 체험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은 법신불의 당체로서 활동하는 설법이라 밀^密은 색^色을 이^理로 하여 일체세간 현상대로 불의법과 일치하게 체득함이 교리이니 체험이 곧 법문이요 사실이 곧 경전이라.

현교경은 문자로서 유식해야 알게 되고 밀교경은 삼밀로서 무식해도 알게 되네 오직 삼밀 행자만이 이 법문을 보는 고로

유식무식 차별 없이 각각 자기 환경 따라 좋은 길과 나쁜 길을 능히 나눠 알게 하게 되니 좋은 길을 버리고서 나쁜 길을 누가 가랴 선악인과 밝게 알아 고^혹 여의고 낙 얻으며 무진법문 넓게 아니 깨쳐 성불하게 된다.”

역경작업과 더불어 교화에 참고가 되는 경전의 편찬 작업도 시작하였다. 밀교교리와 역사를 정리한 ‘총지법장’과 경전 삼장 중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뽑아 불교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응화성전’의 편찬과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법계의 감응이 있어 불사의 인연이 닿아 대구 청구대학의 불교 관련 문헌들을 양도받게 되는데, 그중 밀교 관계 도서들을 확보하게 된다. 대성사는 그중에서 옥과 돌을 골라내고 체계를 잡아 번역하고 편찬해갔다.

이 중대한 불사는 모두 대성사의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결집된 밀교 경전과 가르침은 지금까지 현대 한국 밀교의 귀중한 자산으로 무명의 법계를 비추고 있다.

진각종은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안팎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교세도 뻗어 나가고 있었다. 당시 불교계는 비구와 대처의 대립으로 극심한 혼란과 분란을 겪고 있던 때였다. 정화와 왜색 탈피를 내세우면서 시작된 일이지만 대중들에게는 절 뺏기와



대성사는 진각종 총인으로 종단을 이끌었다.

폭력 사태가 두드러져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전해졌다.

그 첫 출발은 불교 내부의 고민과 수행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 손님과 함께 서울 정릉 절에 방문했는데, 사찰에 널린 기저귀와 속가의 옷, 그리고 일왕의 만수무강을 축원한 일제 잔재의 글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대처는 일제의 잔재이니 사찰에서 몰아내라”고 지시한 일이 있었다. 이에 당시 소수였던 비구승들이 권력의 지지를 받고 대처 측과 사찰 분배를 두고 협의했으나 대처승들의 거절로 건잡을 수 없는 분쟁으로 번지게 된다.

종교의 정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가르침은 때때로 시대에 따라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으며 그 안에 몸담은 이들이 반드시 청정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종교개혁과 새로운 교단의 출현은 그런 정화의 노력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실천과 방법의 모색이 종교적인 길을 벗어날 때 진리를 더럽히는 거짓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된 대처승 몰아내기가 전국 사찰에서 벌어졌다. 대처 측도 타협과 관용을 외면하고 절 지키기에만 몰입했다. 그러나 공권력을 등에 업은 상대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 시대의 추세였다.

당시 소수였던 비구승들은 세 불리기를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세력을 넓혔다. 수행과 계율의 청정은 뒷전의 일이 됐다. 무조건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서, 출신을 가리지 않고 자기편 만들기에 나섰다.

이후 한국불교 분쟁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폭력 사태는 이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대성사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불교의 제1 교리가 다름 아닌 불살계(不殺戒, 즉 그 어떤 생명이거나 심지어 자신의 마음에서마저 폭력을 일으키지 말라는 비폭력이 행동의 필수적인 규범이며, 수행자는 사생의 자부로서 일체를 자비로 대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정화를 명목으로 곳곳에서 폭력이 춤추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현 옷을 누가 빼앗아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에 맞게 가르침과 실행으로 세상에 본을 보일 모범이 필요했다. 수단이 잘못되면 목적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당시의 현실은 밀교야말로 새 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업 이야기 1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마지마 니까야(중아함경)』에서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중생들은 업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업의 작용으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업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karma)라고 하고 팔리어로는 캄마(Kamma)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의지 작용을 업이라고 한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그것이 업이다.”

업은 도덕적 인과의 법칙입니다. 업이라는 것이 없고 그 과보가 없다면 세상은 너무 엉터리로 굴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윤회를 거듭하는 것은 업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업과 윤회는 모두 불교의 중요한 사상적 토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업과 윤회의 개념은 붓다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인도에 널리 퍼져 있던 생각

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도 전통의 업에 대한 개념은 숙명적인 것이며 계급 제도에 사람들을 얹어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너가 업을 잘 못 지어 하천한 계급에 속해 있으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너의 업보를 씻어야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잘못된 업에 대한 생각으로 계급 제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얹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완전하게 만든 것은 부처님이었습니다.

불교는 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의하여 업의 굴레를 벗어버린 부처님과 아라한은 업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어둡고 칙칙하며 숙명적인 업에 대한 개념을 불교에서는 밝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업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업이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업은 자기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나쁜 업에는 괴로움을 당하는 나쁜 결과가 따라오고 좋은 업에는 즐거움이 따라 옵니다. 이것을 선인선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반드시 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자작자수^{自作自受},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합니다. 업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배제되고서는 불교를 말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각각입니다. 우선 태어나는 배경부터도 차이가 큼니다. 흔히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것만 봐도 엄청난 불평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복한 집에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하고 순탄한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거나 어려운 집에 태어나 어둠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태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 비하여 어떤 사람은 보잘 것 없고 추한 용모를 가지고 태어나 평생을 기를 못 펴고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두뇌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 그것으로 평생을 편안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기형아로 태어나 평생을 불우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불평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불평등에는 확실한 원인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불평등은 순전히 우연의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런 불평등이 아무 원인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



불교총지종 전주 흥국사

니까?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모든 것은 자기들의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다 자기들의 신이 그렇게 만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교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의 불평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선천성 기형아나 불구자를 보고 하는 말이 기껏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대하여 불평등을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잔인한 짓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고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불평등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단편적인 눈으로는 그러한 원인을 유추해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업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저지른 것도 포함되지만 그전의 생, 혹은 그 전전의 생에 지은 것도 포함됩니다. 지혜가 있고 깨친 사람은 그러한 과거의 업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대다수의 인류는 이러한 불평등을 창조주의 의지와 같은 하나의 원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나 우연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불평등을 우연이나 조물주의 탓

으로만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의 불평등을 조물주나 우연에 돌려버린다면 굳이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도덕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업에 따른 인과와 윤회전생^{轉生}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깊이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우리는 깨어있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디까지를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나'라는 의식도 없이 삶을 영위해 나간다.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좇아 살아간다. 늘 하는 방식으로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한다. 하루 종일 일에 파묻혀 살다가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되면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집으로 온다. 집에서 저녁을 먹고 TV나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든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며 살지만 단편적인 기억만이 존재할 뿐 정작 기억나는 것은 몇 개 없다. 해야 할 일과 몇 개의 약속 정도가 전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낸 것인가? 웃고 즐기며 보낸 시간 속에 나는 깨어 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문득 느낀다. 관성적인 삶이란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듯 내 삶이 어딘가를 향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러

한 방향과 속도는 누가 정한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정해진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옛사람들은 '나'를 세 가지로 나눴다. 바로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다.

현재의식

현재의식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의식을 의미한다. 감각을 통해 세상과 교감하고 감정을 통해 세상을 느끼며 생각을 통해 세상을 해석한다. 더불어 욕망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실현해 나간다. 느끼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존재한다.

보통의 나는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나의 주재자라고 생각한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고 감촉을 느끼는 감각작용 속에서 나는 내가 존재한다고 느낀다.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감각작용으로 인식하는 세계를 통해 인간은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한다. 이런 존재성이 확장되고 과장되면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현재 내 마음만 바꾸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식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 자신이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또 다른 내면은 잠재의식에 숨겨져 있다.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 보이는 의식을 말한다. 꿈을 꾸면 분명히 내가 존재하고 무엇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꿈속의 나는 스스로의 제어가 불가능하다. 꿈속에서의 의식은 현재의식에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세계가 펼쳐진다. 우리가 현재의식에서 느끼는 감정과 일으킨 생각들은 잠재의식에 쌓이고 불특정한 방식으로 저장되어 기억에서 추출된다.

때때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억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이렇듯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의식의 저장소가 바로 잠재의식이다.

무의식

잠재의식의 세계를 지나면 의식의 깊은 곳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무의식은 잠을 잘 때 꿈조차 꾸지 않는 의식 상태를 말한다. 깊은 숙면에 들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은 숨을 쉬게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의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전생부터 현재 태어나 만들어진 업^業이 모두 무의



식에 저장되어 있다고 본다.

현재의식의 크기는 잠재의식의 수백 분의 일에 불과하고, 잠재의식은 무의식의 수백 분의 일, 수천 분의 일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각기 갖고 있는 심연의 무의식은 우주만큼 광활하다. ‘나’라는 존재는 이러한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가 합쳐진 ‘나’이다. 이러한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존재가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는 이유이다. 현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의식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별없는 것이 안인이다

불교총지종 법장원

자씨^{慈氏}보살이 부처님께 안인바라밀^{安忍波羅蜜}을 여쭙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사와 열반에 모두 평등하여서 분별이 없으면 이것이 안인바라밀이다. 만일 어리석고 하천하고 미쳐 산란한 중생이 욕을 하거든 참고 받아야한다. 이를테면 취한 코끼리를 막기 어려우면 쇠갈퀴로 길들이는 것과 같이, 성내는 마음의 취한 코끼리는 인욕의 갈퀴로 제어하여 길들이나니, 이것이 안인바라밀이다.”

“한량없는 천마^{天魔}와 귀신과 약차^{藥叉}, 나찰^{羅刹}이 와서 침해하더라도 보살은 안인바라밀로써 능히 그 마군을 항복받고, 팔만사천 번뇌의 원적^{怨賊}이라도 안인으로 항복받고 없애며, 이러한 천마의 큰 마군과 번뇌의 원적 뿐 아니라 극히 작은 원적이라도 또한 안인으로 조복^{調伏}하는 것이니, 이것이 안인바라밀이다.”

“비유하면 농부가 곡식을 심으려고 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도랑을 파다가 큰 돌이 가로놓여 있어 도랑을 팔 수 없으면 거기서 중지하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생사를 유전^{流轉}하는 넓은



들판에 지혜의 도랑을 파고 감로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수행할 때에 성냄의 돌을 만나 없앨 방법이 없으면 오직 안인으로 살피서 부수어 뚫고 나아간다.”

이국적인 아름다움 황남대총 출토 봉수형 유리병

위드다르마 편집실

“보살은 신념과 선정 지혜로 숲을 삼고 깨끗한 계행으로 가지와 잎을 삼으니, 만일 이 숲 속에서 성념의 불이 홀연히 일어나서 계행의 가지와 잎을 태우려고 하면 안인의 비로 그 불을 꺼버린다. 보살마하살은 안인의 힘으로 갑옷을 삼으니, 저 악한 사람이 성념의 손에 망상의 활을 잡고 나쁜 말의 화살을 쏘아서 안인의 갑옷을 맞추더라도 그 화살은 스스로 꺾일 뿐 안인의 갑옷은 조금도 상하지 않으며, 그 부러진 화살은 연꽃으로 변한다.”

“중생들은 높고 큰 사다리를 딛고서 범천에 올라갈 것이다. 안인의 사다리가 높고 큰 것 또한 그와 같으니, 보살이 타고 올라가서 천상 중의 천상으로 오르는 것이다.

훌륭한 화가는 여러 가지 형상을 그려서 채색으로 곱게 단장한다. 안인의 화가 또한 이러하여 장엄한 공덕을 원만하게 성취한다.”

“보살은 안인의 힘에 편안하게 머물러서 굳세고 흔들리지 않으니, 맹렬한 바람이 묘고산(妙高山)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안인의 묘고산 또한 이러하여 성념의 맹렬한 바람이 능히 움직이지 못한다.”

『육바라밀경, 六波羅蜜經』 불교총전 발췌

봉수형 유리병은 경주 대릉원에 있는 수많은 고분 가운데서도 규모가 매우 큰 황남대총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로만글라스의 제작 스타일로 미루어보아 실크로드나 바닷길을 통해 서역에서 전래된 유물이라 추측하는 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황남대총은 경주 대릉원의 신라 고분이지만, 이곳에서 봉수형 유리병뿐만 아니라 다른 이국적인 유리제 부장품들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봉수형 유리병의 특징

봉수형 유리병은 입구 부분이 봉황 머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봉수형 유리병이라고 부릅니다. 몸통은 대롱불기 기법으로 계란형이고, 입구는 물을 따르기 쉽게 나팔모양으로 만든 뒤 그 끝부분에 목에 두른 선이나 손잡이 색과 같은 파란색 띠를 둘렀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유리병의 손잡이입니다. 흥미롭게도 손잡이에 순금으로 제작한 금실을 정성스럽게 감았습니다. 유리는 다른 금속이나 석재에 비해 사용하면서 쉽게 파손되는 재질입니다. 따라서 봉수형 유리병도 신라 왕실의 누군가가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손잡이가 깨져 세 개의 조각으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하고 귀하게 여겼으면 깨진 유리병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손잡이를 순금으로 만든 금실로 견고하면서도 아름답게 고정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보존처리로 되살아난 봉수형 유리병

봉수형 유리병은 황남대총 남분의 수많은 부장품들 사이에서 형태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세 조각으로 나뉜 파란색 손잡이는 순금으로 된 금실로 정성스럽게 감아 견고하게 고정하여 다시 사용하던 상태였습니다.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부서진 유리 파편의 깨진 단면이나 색상, 그리고 두께 등을 면밀하면서도 세밀하게 분석하여 약 180여 개의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접합한 결과, 매우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봉수형 유리병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리병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오랜 기간 박물관에 전시되면서 기존 접착제가 심하게 열화^{劣化}하여 접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신 복원제로 각광받던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심하게 황변되어 더 이상 유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2015년 봉수형 유리병의 재복원을 진행했고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봉수형 유리병, 경주 황남대총, 신라, 높이 25.0cm, 국보, 황남3321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황현성〉 제공

오대혁

동국대학교 고전문학 전공
문화비평가
논문 및 저서 <원효설화와 미학>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공동시집<시의 끈을 풀다>

바다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비바람과 어우러져 벌이는 푸닥거리에
오징어배도 갈치잡이 배도 그물을 거두고
포구로 달려와 춤을 추네요
오색기 삼색기 펄럭이며
비나리를 올리고 있네요
만선의 꿈을 품었던 우리를
부디 용서하소서

바다는 본래 고요하건만
아귀 떼들이 탐욕을 버리지 못해
저리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거라지요

이제 우리가 흘려보낸 오욕의 독극물을
플랑크톤이 머금고
홍합이 플랑크톤을 빨아먹고
그대와 속삭이던 포장마차 백열등 아래에서
우리는 홍합탕을 마시며
세습 버무려진 우렁회도 한 접시 들게 되겠죠



오대혁 시인이 그린 2017년 삼천포항

지구가 좁아져서 그런 걸까요
지구가 더 촘촘해져 그런 걸까요
드넓던 바다가, 지구가 좁아터진 건지 몰라요
아귀 떼의 갈증이 극심해져 지구를 좁혀 놓은 것
일지 몰라요
만선의 욕망으로 빈틈 하나 없는 그물을 짜고
문어도 잡고 노래미도 잡고
쓰레그물로 밑바닥까지 죄다 끌어 담을 거예요

포구는 팔랑팔랑 사팔눈 뜨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네요

노선 변경이 필요한 때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주말이라 이웃 할머니 댁에 또 아들네가 왔나 보다. 골목이 들썩거릴 정도로 왁자지껄한 소리에 내다보니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우당탕거리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엄마 품에 안겨 버둥거리던 막둥이까지 합세를 하자 온 집안이 금방 시끌벅적,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 머리 큰 녀석들은 집안팎을 뛰어다니면서 넘어지고 뒹굴며 아우성을 치고, 작은 녀석들은 무엇이든 서로 갖겠다고 언성을 높이고, 손에 닥치는 대로 던지고 뒤집어엎던 막둥이는 마룻바닥을 오줌 바다로 만들어 놓고 철벽거린다. 열두어 살부터 이제 막 걷기에서 뛰기로 노선을 바꾼 막둥이까지, 두세 살 터울의 남자아이들만 자그마치 다섯 명. 어디로 튈지 모를 아들 다섯을 맡겨놓고 발걸음도 가볍게 주말 데이트를 즐기러 나간 아들 내외는 해가 다 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허리가 아픈 할머니는 주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비지땀을 흘린다. 주말마다 우르르 몰려오는 아들네 일곱 식구에게 먹일 별식을 준비하느라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엉덩이 한번 붙이지 못한다. 천방지축으로 들고뛰는 손자들 뒤통무니를 따라다니느라

할아버지도 숨 돌릴 틈이 없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 때문인지(덕분인지), 혼이 쑥 빠져서 동동거리는 모양새에 주변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차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들어서면 서부터 손자들 오니까 좋으시지요, 하던 며느리는 한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상 앞에 앉으면서, 아이들이 기운차게 뛰어노는 걸 보면서 묻고 또 묻는다. 힘은 들어도 손자들 보니까 좋으시지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대답한다. 이제부터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 점심만 먹도록 하자.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게도 묻는다. 아버님, 손자들 보니까 좋으시지요? 시아버지가 대답한다. 전쟁이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개선장군 같다.

이들 젊은 부부는 아이들을 부모님께 보여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동병상련^{同病相憐}일까. 어쩐지 나는 선뜻 동의할 수가 없다. 노부부의 농담 같은 진담 속에서 웃음으로도 다 지우지 못한 피로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들 대식구가 난리법석을 치다가 돌아가고 나면 만사 다 제쳐놓고 한나절쯤 누워 있던 할머니를 종종 봐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손자 손녀를 두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라는 말이 생겼겠는가. 손자들이 사랑스럽고 그런 손자들을 데리고 시부모를 찾아주는 아들 며느리가 더없이 고맙지만,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나이가 된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주방 가득 쌓여있는 설거지를 시작으로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은 집안 구석구석 청소도 해야 하고, 잔뜩 어질러놓은 물건 정리에 지린내 나는 카펫도 빨아 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내 생각일 뿐이지만 귀한 손자들과 함께한 짧은 기쁨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감내해야 할 후유증이 너무 크다.

어느 작가는 손자를 일러 노후의 축복이라고 했다. 그만큼 소중한 인연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보다 감사할 일은 또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나이가 가리킨다. 주말 내내 동동거린 고단함으로 온몸이 천근만근,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현실 탓에 때때로 그 축복이 버겁기도 하다는 걸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일도 있으니.

나 역시 젊었을 때는 손자가 무슨 특효약인 줄 알았다. 그저 손자만 안겨 드리면 그게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았다. 손자 앞에서는 어디가 아픈 것도, 피곤한 것도 다 사라지는 줄 알았다. 손자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마냥 기쁘고 행복한 줄 알았다. 부모님도 불편할 수 있다는 걸, 부모님도 피곤할 수 있다는 걸, 부모님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 내가 온몸으로 깨우친 게 있으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말하는 ‘인간 비타민’ 설이다. 우리 아들 내외 역시 그야말로 큰 효도라도 하는 듯 툭하면 “우리 갈게요~.” 하는데 그게 1박 2일이다. 정말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고 해도 피로 회복에는 인간 비타민이 최고라며 손자를 앞세워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는 데 달리 피할 방법이 없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자 앞에서는 무장 해제다. 맛있는 걸 먹이고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세상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일 수도 있다. 여기저기 쭈시고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아까울 것 하나 없는 손자 바라기가 되고 만다. 모처럼 아파트에서 벗어나 종횡무진 자유를 누리게 된 손자는 일당백이다. 마음껏 소리치며 뛰고 뒹굴던 손자 덕분에 조용하던 집안에도 활기가 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기 마련. 손자가 돌아가고 나면 피곤이 한꺼번에 밀려든다. 해야 할 일을 팽개친 채 맥을 놓고 앉아있노라면 인간 비타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부모님의 손자 사랑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젊은 날의 내 모습이 저절로 떠오른다. 빙산의 일각一角을 떠받치고 있는 물밑 구각九角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이라니. 내리사랑이라는 말에 담긴 부모님의 고단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



각에 새삼스레 마음이 저릿해오곤 한다.

그런 깨달음이 어디 손자를 위하는 일 한 가지뿐이겠는가. 큰 효도라도 하는 것처럼 나 좋은 시간에, 내 기분에 따라 행했던 일방통행이 얼마나 많았던가. 부모님의 사정을 찬찬히 살필 줄 몰랐다. 맛있는 음식, 좋은 선물을 들고 가니까 우쭐한 마음이 되기도 했다. 자식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세월이 스승이라, 이렇게 뒤늦게, 어렴풋이나마 이제야 알겠다. 아버

지 어머니도 쉬고 싶은 때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누리고 싶은 시간이 있다는 걸. 혹여 서운해 하지나 않을까 자식들 마음 살피고 배려하느라 당신들의 많은 것을 미루거나 접어두었다는 것을.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이 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하기 바라고, 죽은 뒤에는 자식의 몸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의 모든 것을 감싸 안았다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음식을 흘리며 먹거나 옷을 잘 입지 못하더라도 이해해다오.

우리가 너희를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부디 끝지 말고 들어다오.

너희가 어렸을 때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라도 기꺼이 응했던 우리처럼.’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의 한 구절에서 알 수 있듯 부모의 시간은 매 순간순간 쇠락을 향해 가고 있다. 비할 데 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한도 초과가 버거운 나이, 맞춤형 효도가 필요한 때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사람이 된다.”라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 더 좋은 자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TERU(조세훈)

평범한 회사원, 대중음악연구소 음악평론가 제의를
받을만큼 음악과 영화를 관하는데 능하다.
콘텐츠 소개 프로그램 올레티비<파본자들> 출연
500여명 구독자 보유 브런치 작가



#1 스타워즈 6부작(1977~2005)

#2 그녀(Her, 2013)

#3 사랑의 블랙홀(1993)

#4 매트릭스(1999)

#5 아메리칸 뷰티(1999)

#6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2003)

#7 천년을 흐르는 사랑(2006)

#8 위대한 레보스키(1998)

#9 파이트 클럽(1999)

#10 엣지 오브 투모로우(2014)

#10 엣지 오브 투모로우 (Edge Of Tomorrow, 2014)

감독 더그 라이만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사쿠라자카 히로시가 쓴 일본 SF소설 〈올 유 니드 이즈 킬〉을 원작으로 하며, 무한 반복되는 시간 안에서 점차 강해져 가는 슈퍼 솔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전투에서 죽으면 다시 전투를 치르기 전날로 되돌아간다는 타임루프 설정을 통해 인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 역시 원작의 설정과 이야기의 큰 뼈대를 고스란히 옮겨왔다. 스테이지를 넘기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도전할 수 있는 게임처럼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 그때마다 주인공의 전투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야기가 지루할 틈이 없다.

타임루프물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윤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불교에서는 생사윤회의 모습을 ‘연기(緣起)’라 일컫는다. 전장 한복판에서 죽음을 반복하며 경험치를 쌓는 빌 케이지(톰 크루즈)는 전장의 여러 요소를 파악해나가며 한 걸음씩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런 측면은 연기와 정확히 합일을 이룬다. 연기란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상호 관계하여 성립되므로, 독립, 자존적인 것은 하나도 없

고, 모든 조건, 원인과 결과는 상호 의존적으로 상관하는 관계에 있다는 설이다.

즉,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_生하므로 저것이 생_生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_滅하므로 저것이 멸_滅한다.’를 뜻하며, 이것과 저것이라는 상호 관계를 통해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실체를 거부하는 시각이다.

죽지 않는, 아니 죽어도 살아나는 주인공이 펼치는 액션 쾌감이 만만치 않지만 그보다 눈길이 가는 건 게임 진행과 유사한 영화의 서사와 전장의 설계다. 궁극적으로 이 영화는 타임루프로 인해 인물과 인물의 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데에 연출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爾性頗高潔 너의 성품이 자못 고결하거니
誰言蟲類微 누가 미천한 곤충이라 하리오
嘯風心獨苦 바람에 울자니 마음 유독 쓰리고
飲露腹長饑 이슬만 먹고사니 배는 늘 주리네
蟪蛄潛懷毒 사마귀의 도끼는 몰래 독을 품고
蛛絲未解圍 거미의 실은 포위 풀지 못하나니
有形真是累 몸뚱이 가지면 참으로 누가 되건만
此物本無機 이 동물이야 본래 샅된 마음 없어라

- 이행(1478~1534), <용재집(容齋集)> 권6

올여름은 유난히 더운 데다가 도시를 점령한 매미들이 한밤중에 합창을 하면 잠을 설치기 일쑤다. 그러나 선선한 가을 기운이 찾아 오면 언제 그리도 울어댔냐는 듯이 울던 매미들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일찍부터 시인들은, 매미가 애벌레로 여러 해를 지내다가 성충이 되어 여름 한철을 노래하고는 사라지는 데서 생의 덧없음을 노래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슬만 마시고 산다고 하여 고결함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특히 그 울음소리에 자신의 억울함과 고독함을 가탁하기도 하였다.

연산군 10년(1504) 폐비 윤씨의 복위를 반대하다 거제도에 귀양을 가서 양을 치던 시인 이행에게도 매미는 자기의 절절한 상념을 촉발하는 존재였던 모양이다. 시인은 고결한 까닭에 학대받을 수밖에 없는 약자의 비애와 한탄을 매미에 투영하였다. 벌써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괴롭게 울어대고 이슬만 마시며 늘 주리는데다가 사마귀와 거미라는 천적에 시달리는 그 모습은, 바로 연사로 억울하게 귀양 온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몸뚱이를 가졌음에도 샅된 마음이 없으리라는 매미에 대한 단상은 생에 대한 시인의 달관일까, 소망일까?

이번 여름 무더위는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다. 이제 곧 무더위도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 매미 소리도 사라질 것이다. 더위가 물러가는 것은 반갑지만 한철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부지불식간에 깨달을 때 또 남은 해를 헤아리며 아쉬움에 잠길지 모르겠다.



새로운 것과 만나는 즐거움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묵탁소리' 지도법사

티벳 불교의 성자 밀라레빠(Milarepa)는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반은 성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낯선 곳으로의 여행과 깨달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밀라레빠는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볼 때, 가슴을 활짝 열어두게 되고, 새로운 눈빛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활짝 나라는 존재가 열려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여행지에서는 정신이 온전히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들뿐이니 전혀 모르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서 비교 분석하지 않은 채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알아차림’과 분별없는 ‘관찰’이 깊어집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의식이 아주 또렷하게 깨어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운전이 익숙하게 되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새롭지도 않고, 주의 깊게 운전하지도 않고, 심지어 운전대를 잡고 줄기도 하고 긴장을 확 풀게 됩니다.

어르신들을 뵈면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를 배우냐!” “지금에 와서 무슨 운전면허를 따느냐!” 라는 말을 하곤 하십니다. 아주 익숙한 것만 하려하고 새로운 것을 새롭게 도전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로 인해 치매도 오고, 정신도 흐려지게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더군요.

우리가 이번 생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삶을 경험함으로써 삶이 우리에게 주는 배움과 정신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삶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 온 새로운 어떤 경험을 과거의 진부한 것으로 덮으며 새롭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나 영감이 떠올랐다는 것은 그것을 저질러 실천하고, 체험하라는 우주적인 명령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을 저질러 실천하지 못하고 매번 번번이 과거의 정해진, 익숙한 틀 속에서만 안주하려는 것이야말로 우주적인 내 삶의 몫을 건어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움 속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나도 혼자 한번 여행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Photo by 서강 Leo

가겠고, 저것 때문에 못 가겠다.” 또는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삶의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을 위해서 언제나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일 일지라도 그것을 새로운 마음가짐과 시선으로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삶이 나날이 진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미지의 것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새롭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 새로운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똑같은 것의 반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숨을 쉬지만, 동일한 숨이 들어갔다 나오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새롭게 살아 갈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활짝 열린 생경한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품격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송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숨대평론〉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이 대화는 지난 6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화이다. 한동훈 장관은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연단에 나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의원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마이크 앞에 서있음을 알렸다. 그러자 김예지 의원도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두 번째로 나온 한덕수 총리도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한동훈 장관처럼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그것을 본 시청자들은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자기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이 에티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문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에티켓에 관해 선명하게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항상 고성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김예지 의원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은 한국 의회정치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는 변화하면서 발전한다. 18년 전 정화원 의원은 안내견이 국회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 비서관의 팔을 잡고 대정부 질문 연단에 섰다. 그런데 오늘날 김예지 의원은 안내견 조이의 목줄을 잡고 독립 보행을 하였다. 당당한 그 모습은 보는 이에게 신뢰심을 심어주었다.

이를 위해 김예지 의원은 그날 오전 안내견 조이와 함께 미리 본회의장을 찾아 단상까지 가는 동선을 체크했다. 몇 걸음 이동한 뒤 인사해야 하는지, 몇 걸음 더 걸으면 단상이 나오는지를 확인했다. 남은 발언 시간 확인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했다. 발언 시간 종료 5분 전, 1분 전에 의원실 직원이 알람을 보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장애인 예산을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권위를

세우기 위해 명령어로 주문을 하지만 김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겸손하게 말했고, 상대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김예지 의원은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을 언급하며, ‘코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고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며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연설을 했다. 이것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시킨 명연설이었다.

이처럼 큰 화제를 모은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장애인 비례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불어 장애인을 불편하고 무능하게 만든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닌, 우리 사회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배판다는 것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총지중에 들어온지 벌써 20년이 다되어간다. 처음 총지중에 교무가 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총지사 1층 숙소에서 생활하며 교무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신림동 고시촌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했다. 하루하루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 우연히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우리서당'이라는 곳을 알게 되어 그곳에서 논어를 배우게 되었다.

서당 선생님은 우리서당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리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2번씩 봉사활동을 하게했고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게 되었다. 고아원, 요양병원, 목욕봉사, 청소봉사, 반찬배달 봉사 등 2년 정도 했던 그때의 다양한 경험들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서당을 그만둔 나는 또다시 무료한 일상을 보내기 보다는 봉사활동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싸이월드에서 있는 '사랑실천'이라는 봉사단체에 가입하게 되었고, 1년 후 부터는 봉사



단체를 이끌게 되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아동센터와 도봉구 창동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아동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자신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하고, 무엇을 받든, 얼마를 받든, 어떻게 받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무엇을 더 받기보다는 무엇을 더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베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요즘도 가끔씩 그때 만났던 아이들과 같이 봉사활동했던 친구들이 보고 싶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지 않고 빈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며,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자신이 돋보인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무언가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인과도 그러한 것이고, 행복도 그러한 것이다.

사람들은 빛을 찾아 해매는 불나방처럼 화려함을 쫓아 결국 자신을 불태운다. 지금도 불나방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빛을 찾아 해매고 있다. 하지만 꽃은 지금 여기 피어있다.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은 채,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승직자가 된 나는 이제 산다는 것이나 사랑한다는 일이나 그러한 것들이 때론 낯설게 느껴지고 고개 숙여 수줍은 듯 열린 미소 짓지만, 지금도 영천 단음사 경내에는 수국, 수련, 접시꽃, 백일홍이 피어있고, 다양한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다. 바람은 일어 그대를 향해 감추어 두었던 나의 꿈들에 길 하나를 만들어 그대에게 닿을 것만 같아 아슬아슬한 나의 마음을 새벽이슬처럼 방울방울 떨어뜨린다.

미모는 가죽 한 꺼풀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사)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임고문
 80여 편의 논문 발표, 20여 권의 저·역서 발간
 <원효의 판비랑론 기초연구> 등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한국연구재단 10년 대표 연구 성과 선정

‘미모는 가죽 한 꺼풀.’ “Beauty is but skin deep”이라는 영어 속담의 우리말 번역이다. 잘생긴 남자든, 아리따운 여인이든 채 5mm도 안 되는 얼굴 가죽 한 꺼풀만 벗기면 흉측한 해골이 드러난다. 화상만 입어도 얼굴이 모두 망가지면서 옛 모습이 사라진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매일 닦고 씻고 바르고 꾸미는 얼굴인데 참으로 허망하지 않을 수 없다.

길을 걷다가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띈다. 친구라고 확인되면 악수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다. 우리나라 5천만, 아니 전 인류 78억명이 모두 이목구비를 갖춘 얼굴을 달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헛갈리지 않고 내 가족이나 친구를 정확히 짚어낸다. 간혹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닮은 사람을 발굴하여 TV에 등장시키지만, 혼동할 정도로 같은 사람은 없다. 대뇌피질 하부에서 얼굴인식을 담당하는 방추이랑(Fusiform Gyrus) 영역의 놀라운 감별력이다.

불전에서는 우리의 심신이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친다. 색은 나의 육신이고, 식은 마음이

며, 수, 상, 행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심리작용들이다.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감성이나 의지를 의미한다. 우리의 육체인 색도 무상하고, 고락의 느낌인 수, 생각인 상, 감성이나 의지인 행, 그리고 마음인 식 모두 무상하다. 항상 변한다. 이렇게 변하기에 오온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자아가 아니고非我, 그 어떤 것에도 자아가 없다無我.

외모는 오온 가운데 육신인 색의 일부다. 우리의 외모는 상처가 나도 달라지고, 화상을 입어도 망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변한다. 따라서 나의 외모가 진정한 나일 수 없고, 나의 외모에 진정한 내가 존재할 수 없다. ‘미모는 가죽 한 꺼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제법무아諸法無我的 가르침, 즉, “그 어떤 것에도 자아는 없다”는 가르침의 편린이다.

우리는 얼굴에 배치된 이목구비의 위치를 보고서 예쁘다거나 잘생겼다고 말하지만, 진화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목구비의 원래 역할은 먹이 탐지와 관계가 있다. 인간이든 짐승이든 얼굴에 눈과 코와 혀가 몰려 있는 이유는 먹이가 들어가는 ‘입’ 주변에 포진한 탐지기이기 때문이다. 눈은 멀리 있는 먹이의 모습을 포착하는 ‘원격 광학탐지기’이고, 코는 가까이 가져온 먹이의 성분을 탐지하는 ‘원격 화학탐지기’이며, 혀는 목구멍으로 삼키

기 직전에 먹이의 화학성분을 최종 검사하는 ‘근접 화학탐지기’ 일 뿐이다. 눈과 코와 혀의 3단계 검토를 통과해야 먹이를 비로소 목구멍으로 넘긴다. 우리는 남의 눈매와 콧날과 입의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의 미모를 판단하지만, 얼굴 가죽 한 꺼풀에 배치된 이목구비의 원래 용도는 이러한 먹이탐지에 있다. ‘미모는 가죽 한 꺼풀’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이목구비의 용도를 상기하면 굳이 그 가죽 한 꺼풀을 벗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미추가 사라진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인간의 모든 얼굴 모습은 ‘먹어야 생존하는 가련한 중생’의 모습일 뿐이다.

『청정도론』을 보면 여인이 웃을 때 그 이빨과 연결된 해골을 떠올려서 억겨운 마음을 내어 아라한과에 오른 비구스님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여인의 얼굴에서 가죽을 걷어내는 일종의 ‘상상^{想像} 실험’이었다. ‘미모는 가죽 한 꺼풀’이었다.



피카소, 꿈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PART 1. 한국의 풍속

- I. 사신
- II. 화성원행반차도
- III. 무예 24기
- IV. 전래동화

V. 시집가는 날

- VI. 삼일유가
- VII. 조선의 풍속
- VIII. 12지신

V. 시집가는 날 (Wedding Day)

혼례는 인륜지대사 人倫之大事라고 하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여겼다. 특히 관혼상제 중 인간이 그 날짜를 결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절차이다. 그리고 일생에 단 한번 왕후장상과 같은 호사를 누리는, 가장 큰 잔칫날이다. 혼례행렬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의 평안한 앞날을 기원했다. 혼례는 신랑 신부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축제이다.



중대팔엽원의 불보살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총지종 서원당의 본존(옴마니반메훴)의 왼쪽에는 금강계만다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태장계만다라가 있습니다. 만다라는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일체제법(一切諸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과 무수한 권속들이 모인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만다라는 『금강정경』을 근거로 종교적 실천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생이 부처되기 위한 수행과정을 9개의 작은 만다라로 상징화했습니다. 이 만다라에는 1,461존의 보살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태장계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애기가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자라듯이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생장하게 하는 만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자대비(大慈大悲)한 부처의 마음, 즉 보리심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는 인간과 우주가 불이 일체(不離一體)가 되어 성장한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만다라에는 중대팔엽원을 중앙으로 414존의 보살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1. 보당여래



8. 미륵보살

5. 보현보살

4. 천고뇌음여래

2. 개부화왕여래

7. 관자재보살

6. 문수보살

3. 무량수여래

중대팔엽원은 태장계만다라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팔엽원의 가운데에는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 그 주위에는 연꽃위에 네 분의 여래인 사불과 네 분의 보살님인 사보살이 계십니다. 무명중생을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중대팔엽원 불보살들의 자세한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팔업원의 불보살

1. 보당여래: 번뇌 망상을 없애고 보리심을 주시는 분
2. 개부화왕여래: 연꽃 피듯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분
3. 무량수여래: 무한한 수명을 주시고 극락정토에 머무는 분
4. 천고뇌음여래: 무명에 빠진 중생을 천둥소리로 일깨워 줌
5. 보현보살: 실천과 용기를 상징. 코끼리를 타고 있음
6. 문수보살: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 사자를 타고 있음
7. 관자재보살: 중생을 구원하고 대비심을 나타내는 분
8. 미륵보살: 중생을 교화하고 미래의 부처님으로 오심



- 01 공갈젓꼭지에 집착하는 아이
- 02 고기만 먹고 채소는 안먹는 아이
- 03 잘 먹지 않거나 음식을 입에 물고 있는 아이
- 04 제자리에서 안먹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
- 05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06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하는 아이

- 07 씻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 08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 09 계절과 상황에 안맞는 옷을 입으려는 아이
- 10 스스로 옷과 신발을 벗지 않으려는 아이

06.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하는 아이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하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그 놀이를 계속하기 위해서, 혹은 그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소변을 참는 경우가 많다. 다급한 마음에 팬티에 찢끔 누거나 화장실 바닥에 누기도 한다. 소변이 누고 싶으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을 가라고 하지만 아이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

원인

- 1) 엄마는 대소변 가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대소변가리기 훈련이 아직 미숙하여 소변 보고 싶다는 느낌을 잘 몰라 참는 경우
- 2) 아이가 집중해서 놀 때, 놀이의 흐름을 깨트리고 싶지 않은 경우
- 3) 화장실 가는 동안 주변에 자신이 사용했던 장난감을 뺏길까봐 불안한 경우
- 4) 우리 집 화장실 이외 다른 곳의 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경우

지도방법

- 1) 아이가 소변을 누고 싶을 때 하는 특정 행동을 기억하고 그 행동이 보이면 바로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 2)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유도한다.
- 3)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대신 지켜준다.
- 4) 급하게 화장실을 갈 때 아이 대신 옷을 벗겨 주어 시간을 단축시킨다.
- 5)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혼내기보다는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안심시킨다.

기타

- 1) 옷에 실수하는 상황은 아이 발달상 나타나는 정상적인 발달 모습 중 하나이므로 부모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 2) 아이가 실수한 후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옛 물이 있을소냐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등

넷물이 폭포수 소리를 내고 있다. 태풍이 마구 비를 쏟아낸 까닭이다. 그 소리를 듣는다. 귀에 닿은 소리들은 다음 순간 사라진다. 소리는 머물지 않는다. 넷물도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무상^{無常}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무상이 '허무'로 느껴진다.

예부터 그렇게 노래한 시인들도 많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 물이 있을소냐
인걸이 물 같아야 가고 아니 오노매라

황진이가 스승 서경덕을 그리워하며 쓴 시라고 한다. 쓸쓸하기에 더 아리답게 느껴진다. 황진이님을 가만히 안아주고 싶다. 산도 옛 산이 아니지요. 황진이 당신도, 서경덕 그분도, 그리고 저도 모두 무상합니다.

씨앗을 뿌린다. 싹이 터서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어 열매가 달린다. 열매가 커지고 익어서 여럿의 식량이 된다. 열매 생산이

끝난 풀포기는 시들어 이윽고 사라진다. 이것이 무상의 과정이다. 무상을, 허무를 피하고 싶다면 어느 단계부터 피하면 좋을까. 싹이 영원히 싹으로 머물면 좋을까. 잎사귀로, 꽃으로, 열매로, 씨앗으로 머물면 좋을까. 태어난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좋을까. 만약에 그런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닌 플라스틱이다.

우주의 시원^{始原}인 저 블랙홀이 영원한 블랙홀이기를 바라는가. 무상은, 변화는 바로 생명 현상이다. 그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이 무한우주의 작동 방식은 바로 무상이다. 끝없는 변화다.

그런데 무상이 허무로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상의 영원한 작동 과정 중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을 끊어내어 '나'라고 주장하며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자가당착적인 욕심은 신이라도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조그맣던 배롱나무가 꺾충 커서 가지를 쳐냈다. 데크의 마룻장 하나가 썩어서 구멍이 생겼다. 이사 온 후 십오 년 가까이 모두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첫 해에 제 발로 들어온 눈이도 이제는 등이며 얼굴까지 모두 허영다. 갓 한 살이던 그때는 요염(?)하기까지 해서 '황진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렇게 변했다. 눈이도 잘 살고 있다. 그래도 눈이가 변하고 변해서 아주 달라져

버리면 나는 분명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왼발과 오른발이 있어야 걸을 수 있듯이 우리는 그냥 너와 나의 역할을 하며 함께 기뻐했으니.

스승이 말씀하신다.

“죽음은 없습니다. 단지 변화일 뿐입니다.”

황진이님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상합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한입니다.



그 신비한 거리 下

lovely찌이

송인공원 정자에서 내려다보이는 도시 숲에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이 아니라 미세 먼지 가득한 빌딩 숲속에서의 답답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보니 잠잠하던 비염도 어느새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숲 사이로 총지중 사원 밀인사가 보인다. 합장하며 인사한다. “성도합시다.” 그리고는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위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며 오후를 즐겨본다. 갑자기 저기서 일행이 손짓을 하며 빨리 오라고 부른다. 가봤더니 자신의 뱃살을 체크하는 ‘대나무 사이로 통과하기’가 있었다. 다들 빼빼 시들이라 문제없이 ‘난 흘쭉’ 단계까지 통과했는데, 한 명만 유독 ‘난 통통’에 배가 걸린다. 다이어트를 다짐해본다. 그렇게 한바탕 웃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졌다. 저녁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다. 우리의 배꼽시계는 어김없이 울리고, 동대문 시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기가 막히고 엄지척이라는 생선구이 추천을 받아 한 20분을 걸어 가다보니 생선 굽는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골목 끝까지 생선



© Photo by 산업다이러리

구이집이 줄을 섰다. 가게 종업원들이 저마다 앞치마 입고 나와서는 “여기로 와요~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라며 유혹의 손짓을 보내고 우리는 그 중 연탄불고기도 같이 나오는 집을 선택하여 자리에 앉았다.

어렸을 적 우리 집엔 생선이 거의 매일 반찬으로 올라 왔었다. 엄마가 육고기를 못해준 날에는 생선 한 마리 구워 밥상에 올려 주셨다. 그 덕에 우리 자식들은 성장을 잘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력지를 가지게 된 것 같다. 새삼 영양 가득했던 밥상을 떠올려 보며 생선을 골라본다.

임연수, 갈치, 고등어, 조기 종류별로 다 시켜봤다. 일행 중 한 명이 발골 실력을 발휘해서 숟가락 두 개를 이용해 생선을 두드리더니 뼈와 살을 분리한다.

“우와~ 제주도에서 장인이 갈치살을 발라 주던데 혹시 거서 배웠는교?”

우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렇게 생선뼈를 발라 양파 고추를 찢어 넣은 간장에 콕 찌어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운다. 너무 늦은 시간에 간 탓에 영업종료 시간이 코앞이라 허겁지겁 먹었지만 잘 먹었다는 인사는 잊지 않고 나왔다. 동대문 시장에 방문하게 되면 생선 골목에서 생선 백반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길 권해 본다.

한 계절 늦은 여행답이지만 5월의 동묘시장 나들이는 이렇게 끝이 났다. 아직은 건강하기에 두 다리로 걸어서 좋은 볼거리 맛있는 먹거리 탐방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 행복은 그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난 거 먹고 예쁜 거 보고 서로 아끼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행복 아닐까? 오늘도 감사한 날이다.

지난 호 정답

①㉠ 해	탈	절			㉡ 나		② 삼	계	㉢ 탕
루			③㉣ 경	동	시	장			비
⑤ 질	㉤ 풍	노	도		고		④ 밤	㉥ 마	실
	비			⑥㉦ 머	랭			호	
⑧ 은	박	지		털			⑦ 울	가	미
	산		⑨ 파	도		㉧ 양		니	
㉨ 이		㉩ 세		⑩ 사	필	귀	정		㉪ 허
⑪ 목	련	존	㉫ 자			비		⑫ 고	수
구			⑬ 유	니	㉬ 콘				아
⑭ 비	트	코	인		⑮ 칩	거		⑯ 루	비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㉑		㉒		㉓		②㉔			㉕
				③					
④						⑤			
				⑥㉖					
	⑦						⑧	㉗	
㉘			⑨			㉙			
⑩	㉚					⑪	㉛		㉜
			㉝		㉞				
⑫					⑬				
			⑭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① 총지중에서 준제관음보살의 진언으로 염송 수행하는 법
“나무 싹다남 삼막삼못다 구치남 단야타 옴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 ② 1995년 창간된 불교총지중 종단 발행 신문
- ③ 사주로 한 사람의 운명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동양철학의 한 학문
- ④ 임진왜란의 화의가 깨지고 1597년 왜군이 조선을 재침공한 사건
- 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
- ⑥ 총지중의 교도 조직 명칭
- ⑦ 불교에서 사부대중이 정해진 날에 참회하고 계율을 지키는 의례
- ⑧ 흠탕물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 불교를 상징하는 꽃
- ⑨ 갈림길이 많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없다는 사자성어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라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뜻. 00지탄
- ⑩ 행운이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 ⑪ 사중수법 중 구하는 게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외우는 진언, 0000 사바하
- ⑫ ‘리자 부인’이라는 뜻을 지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 ⑬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되어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날
- ⑭ 불교에서 말하는 도리천에 있는 달콤하고 신령스런 약수

세로 열쇠

- ㉑ 법을 바르게 잘 지키는 정신
- ㉒ 다른 말로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이끄는 관세음보살의 다른 말
- ㉓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승직자로부터 받는 불명
- ㉔ 각 대학교에 있는 학생자치기구
- ㉕ 문인들이 서재에서 쓰는 네 가지 도구(붓, 먹, 종이, 베풀)
- ㉖ 삼복 가운데 마지막에 드는 복날
- ㉗ 1871년 미군이 강화도를 침공한 조선과 미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
- ㉘ 꽃으로 장식한 상여
- ㉙ 머루 또는 등나무처럼 덩굴이 발달하는 나무
- ㉚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
- ㉛ 다이아몬드, 흑연, 목탄 등에 존재하는 화학원소(C)
- ㉜ <무정>, <마의태자> 등을 집필한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문인
- ㉝ 하나하나의 모든 구절
- ㉞ 기운이 없고 풀이 죽은 상태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훤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종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양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보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내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감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마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이탈리아 페르모라는 도시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사 '카타'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15가지 방학숙제를 냅니다.
2015년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아침에 혼자 해변을 산책하라.
햇빛이 물에 반사되는 것을 보고 네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생각하라. 행복해져라.
*최소한 한 번은 해가 뜨는 것을 보아라.
말없이 숨을 쉬어라. 눈을 감고 감사함을 느껴라.
*햇빛처럼 행복하고 바다처럼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언어 능력을 기르고 꿈꾸는 능력을 늘리기 위해
가슴 아픈 대화가 나오는 영화를 보아라.
너의 여름을 살고 경험하며 너만의 영화를
살아보아라.

*빛나는 햇빛 속이나 뜨거운 여름 밤에
네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꿈꾸어 보아라. 포기하지 않기 위해, 꿈을 좇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라.

아마도 카타 선생님은 학생들이
여름이라는 계절을 통해
더 뜨겁고 넓고 깊은 꿈을 꾸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심끝에 낸 숙제였을 겁니다.

2023년 여름, 여러분의 여름은 어떤가요?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꿈,
여전히 꿈을 꾸고 있나요?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수해 이웃과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전달되며 수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법 공	보명심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우 인	이수영	이시에	이인성	이종성
이혜성	자선화	정화연	총지화	한영희	한철수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장윤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승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제우	김진문	윤중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 행 일 총기 52(2023)년 8월 1일
발 행 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김상미
발 행 불교총지중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08월호



안인^{安忍}의 묘고산은
진에의 모진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 환당 대중사 법어록 중에서 -